

技術開發 活性化對策 確定

第4回 技術振興審議會에서

政府는 韓國電力公社, 電氣通信公社 등 16개 정부투자 기관이 소득 또는 수입금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中·長期기술개발계획수립시행, 관련기술개발기초연구, 인력양성 등에 투자도록 하는 등 國營企業의 技術開發活性化對策을 마련했다.

第4回 技術振興審議會(委員長 李正五 科技處長官)는 이 같은방침을 8월 31일 확정시켰다.

이번 會議에서 마련된 국영기업의 技術開發活性化對策은 이외에도 각 투자기관의 기술개발목표에 맞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도록하고 기관별 경영평가지표항목중 기술개발관련항목의 가중치를 現行의 7~20%를보다 상향조정토록 했다. 한편 이날 會議에서 政府는 신소재를 國策研究對象事業으로 책정하고 우리 여

전에 적합한 유망품목을 선정하여 개발지원하기로 하고 學界, 研究所, 民間企業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따라서 정보교환과 共同研究開發을 위해 관계전문가로 구성, 신소재협의회를 설치운영키로 했으며, 특히 協同研究開發할 수 있는体制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共同研究事業에 대해서는 政府의 開發資金을 우선 지원키로 하였다.

이밖에도 앞으로 신소재사업의 施設機資材에 대한 관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기자재에 대한 관세감면과 신소재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특별감가상각 등의 지원제도도 보강키로 하였으며 產業用보일러技術水準評價 및 對策에 관하여도 의결하였다.

이전시키기로 확정했다.

大德연구단지는 총면적 8백40만 9천평으로 이 가운데 3백23만 7천평을 연구 및 교육지역으로, 67만 7천평은 주거지역 그리고 4백49만 5천평은 자연녹지로 개발, 오는 '90년까지 시범적 전원기술도시로 건설된다.

'88年까지 核燃料 自給

韓國型標準原電도 開發

政府는 核燃料 成型加工 工程의 國產化와 韓國형 표준 원자력

발전소의 선정 등 앞으로 原電開發事業을 국내 주도형으로 바꾸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내자 329억원, 외자 1천400만달러 등 모두 440억원을 들여 輕水爐型 核燃料成型加工工場을 내년 6월에 착공하여 오는 88년말 준공시킬 예정이다. 이 공장이稼動될 경우 國內 原電에서 所要되는 核燃料는 모두 自給된다.

이와 함께 原電工事期間을 단축하고 기자재의 제작원가와 총건설비를 절감키 위해 한국형 표준원전으로 900MW급 輕水爐型을 결정했다.

이와 같은 결정은 현재 稼動中이거나 建設中인 國內 原電 9基 가운데 8基가 輕水爐型(PWR)이고 월성의 1基만이 重水爐型(C-ANDU-PHWR)이기 때문이다.

建設管理體制定立지원반 설치

蔚珍原子力 建設現場에

韓國電力公社는 原子力9·10號機 공정 및 공사비관리 체제와 공사관리 전산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8월 10일 울진원자력 건설 현장에 「건설관리 체제정립 지원반」을 설치하였다.

發電所 建設管理體制 確立을 위한 제 1단계 조치로 이날 처음 발족된 이 지원반은 한전 건설관리요원 6명과 한국전력기술(주) 3명, 한중 2명, 동아건설 2명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된 종합지원팀으로서 사업 및 설계관리, 시공관련회사가 공동참여하여 現場에서 직접 문제점을 해결하고 협조를 도모함으로서 막대한 시설투

大德團地「技術都市」로 建設

87년까지 7個 機關 移轉

政府는 8월 24일 경제장관협의회를 열고 大德연구단지를 인구 5만명 수준의 테크노폴리스(기술도시)로 건설키로 하고 오는 '87년까지 韓國科學技術院, 動力資源研究所, 에너지研究所, 전자기술연구소 등 서울 소재 4개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종합과학관, 천문대 등 2개 국가기관, 산업기술대학 등 모두 7개 機關을 대상으로

ANS 韓國支部 뉴우스

運營委員會議開催

朴, 李 會長을 顧問추대

美國原子力學會(ANS) 韓國支部는 지난 9月 4日 運營委員會議를 開催하고, 朴正基 韓國原子力產業會議 會長과 李炳暉 韓國原子力學會 會長을 顧問으로 추대키로 決定하였다.

자사업에 대한 종합관리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정립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科學技術부문 増額

政府는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기 위해 이 부문에 대한 내년도 예산을 금년보다 55% 늘리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이 85년도 마련한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과학기술부문의 事業費를 1천609억원으로 策定, 금년의 1천37억원에 비해 55.1%나 늘려 잡았다.

第30回 科學展 개막

제30회 전국과학전람회가 8월 28일 국립과학관에서 개막되었다.

대통령상(상금 각 2백만원)에는 「우리 고장에 있는 화석같은 무늬암석의 탐구」를 출품한 전남 완도군 모도국민학교 모동분교 과학반 어린이와 「고감도 용액 열량계」를 출품한 서울고교 金相勲

교사가 각각 차지했다.

이번 科學展에는 全國에서 출품된 6천 2백 94점 가운데 각 시·도예선을 거쳐 올라온 2백 61점 중 대통령상 2점, 국무총리상 2점, 특상 46점, 우수상 92점, 장려상 111점 등 253점이 최종입선됐다.

이들 입상작품들은 9월 27일 까지 국립과학관 전시실에서 전시되며 10월부터 12월까지 지방순회전을 갖게 된다.

에너지節約技術센터設立

年間 4,000억 節約目標

政府는 에너지의 절약을 위해 先進에너지技術을 개발, 활용할 「에너지節約技術센터」를 설립한다.

科技處가 마련한 에너지절약 3개년 기술개발계획에 따르면 1987년부터 에너지 分野에서 연간 4천600여억원을 절약시킬 것을 목표로 올해안에 產學研 및 정부의 전문가로 구성된 에너지절약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동력자원 연구소 산하에 「에너지節約技術센터」를 설립, 1985년부터 3년간 모두 140억 원의 研究費를 투입하여 原子力지역난방, 연료전지개발, 고효율도시서비스개발 등 27개 開發課題를 추진할 계획이다.

科技處는 先進에너지技術을 활용할 경우 보일러부문에서 490억 원, 오로부문에서 150억 원, 내연기관 420억 원, 焙熟 1천960억 원, 電力 640억 원, 신축건물에너지절약 680억 원, 산업공정효율개선 300억 원 등 모두 4천640억 원을 節約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工大生47名 古里原電근무

韓電 古里原子力本部는 지난 7월 2일부터 8월 30일까지 60일간 全國 工科大學 아르바이트 학생 47명을 선발, 업무보조를 맡김으로서 내일의 工業立國을 떠 맡을 大學生들에게 原子力發電의 중요성과 必要性을 홍보, 이에 대한 이해를 크게 증진시켰다.

韓·日科學技術長官會議

原子力 등 25個 課題 共同推進

第6次 韓·日科學技術長官會議가 지난 7월 25일 李正五 과학기술처장관과 일본측 岩動道行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열려 韓·日 양국의 科學技術協力を 한층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공공연구기관간 연구협력 12개 과제를 비롯한 정부 및 공공기관간 협력 4개 과제, 原子力協力 9개 과제 등 총 25개 과제를 양국 공

동으로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번 會議에서는 韓·日 정부기관, 공공기관 및 공공연구기관간의 科學技術協力を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共同研究事業, 과학기술인 등의 인적교류 및 정보교환을 확대키로 합의했다. 또한 양국의 연구기관간의 자매관계 형성을 포함한 협력을 적극적으로 권장키로 했다.